

희림 (Siegesbeckiae Herba)

- 기원 : 털진득찰 *Siegesbeckia pubescens* Makino 또는 진득찰 *Siegesbeckia glabrescens* Makino (국화과 Compositae)의 지상부이다.
- 성미 : 맛은 쓰고 성질은 차다.
- 성상 : 이 약은 지상부로 줄기는 네모졌고 가지가 갈라졌으며 길이 30~60 cm, 지름 3~10 mm이다. 바깥면은 회록색 ~ 황갈색이고 흰색의 털이 많이 나있다. 꺾인 면은 흰색 ~ 녹색이고 속은 넓고 흰색이며 비어있다. 잎은 마주나있고, 쭈그러져 있으나 펴보면 달걀모양 또는 삼각꼴의 달걀모양이고 끝은 뾰족하다. 윗면은 연한 녹색을 띠며 3 줄의 엽맥이 뚜렷하고 아랫면의 엽맥 위에는 털이 촘촘하게 나있다. 이 약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볼 때 줄기의 피부는 주로 후각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유세포는 없거나 1열 또는 드물게 2열정도이다. 연륜이 오래 된 것에서는 분비도도 볼 수 있다. 안쪽껍질층은 뚜렷하고 세포에는 소량의 탄수화물 과립이 들어 있으며 카스파리점은 뚜렷하지 않다. 사부는 1차 사부 섬유속이 바깥쪽의 목화된 수선 세포 연결하여 후벽세포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후벽세포 고리층은 수선이 있는 곳곳이 점점 나누어진다. 유관속 바깥쪽에는 후벽세포 묶음이 존재한다. 목부는 도관, 도관, 목부수선, 목부섬유 및 목부유세포로 구성되었고 목부유세포는 비후되었으며 목화되어 있다. 수는 원형에 가까운 유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간극이 있다. 수의 바깥쪽 유조직중에는 분비도가 분포하여 고리 모양을 이루는데 그 안에는 노란색분비물이 들어 있다. 수의 중앙은 비어있을 때가 있다. 이 약은 특유한 냄새가 약간 나고 맛은 약간 쓰다.
- 성분 : darutin-bitter, alkaloid, kirenol, 17-hydroxyl-16 α -Kauran-19-oic acid, 각종 ester
- 약리 작용 및 용도 : 중풍 반신불수, 안면신경마비, 고혈압에 효험.

